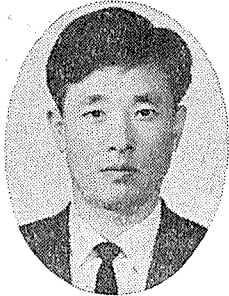


# 行動과 思考에 自信 갖도록 指導

새것을 받아 들일수있는 資質 길러주어야



金 珍 衡

〈京畿女子高等學校 生物 教師〉

## ☞ 敎育 各體(학생)의 문제

생활의 과학화란 과학 지식의 습득과 새로운 과학 지식을 개발하여 이러한 지식을 응용한 실생활에의 이용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생활을 과학화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과학화(합리화)하고 과학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가 길러지는 일이라고 보겠다.

이러한 인간 행동의 발달은 태어나서부터 4~5세까지의 시기에 인간으로서의 행동이나 태도의 발달이 가장 급속도로 이루어지며 이 때의 경험이 태도 형성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때문에 과학적인 태도나 자질을 기르는 것은 유아기의 어머니의 敎育이 밀받침이 된다고 보여지므로 장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우리 여자 학생들을 어떻게 敎育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어져 더욱 어깨가 무거워진다.

그렇다면 실제 일선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경험을 하게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하여 과학적인 자질이나 태도의 발달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첫째, 과학하는 데는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응용하는 능력이라고 하겠다.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자기의 행동이나 사고 방법에 자신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자기의 능력에 자신이 없다면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에 인색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5월 중순 경에 40년전 코홀리계 때 다니던 모교를 찾을 기회가 생겼다. 내가 재학 시절 풍상에 보대껴 비틀어지고 우중충하던 목재 건물은 헐려 나가고 그 자리에 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밝고 번듯하게 들어서 있었다. 장족의 발전이라고 촌로들은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있었다. 허나 안타까운 것은 교실의 구조였다. 예나 다름바 없는 평면의 칠판은 20여명에 7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때 북도쪽 맨 앞줄에 앉은 아동은 운동장쪽 구석에 쓰인 칠판의 글씨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교실의 칠판이 환경 미화용이라 할지라도 누구나가 잘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차 중요한 교구임에에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는가? 칠판의 면이 포물선을 긋는다면(실제로 실험해 본 경험있음. 한성여자고등학교 생물실) 또 운동장 쪽의 앞면(칠판 있는 곳)은 밀창 대신 벽면이었으면(약 1m 가량, 실험한일 없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이러한 곳의 글자는 운동장 쪽에서 들어오는 빛이 칠판면에서 반사되어 보이지 않음. 칠판면과 앞줄 학생과의 거리. 칠판면의 보조 조명장치·커튼 사용 등 고려된 바 없음). 여사한 일의 내판단이 옳은 것으로 가정한 다면 이러한 현상(전술의 교실)은 설계자나 시공자 또는 감독자가 새로운

방법이 나 지식을 받아들이는 자기의 행동에 자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자기 행동에 자신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 과학화를 위한 밑받침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보도록 도와주고, 조그마한 일에도 성공적인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 실험 실습때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분단과 받지 않는 분단 중 성공적인 분단과 실패한 분단을 골라 균등한 기회가 가도록 학생을 지명 발표케하는등 기회있는대로 성공적인 경험의 기회를 맞보게하여 자신을 갖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들일 수 있는 자질을 길러 줘야하겠다.

둘째,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무엇인가를 알아 보려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무엇을 알아 보려 하고 해보려 하는 욕망을 낳을 때 부터 타고나는 것이지만, 자라는 과정에서 무엇을 해보고 싶을 때 못해 보고, 알고 싶을 때 알아보지 못한 경험이 누적되면 그러한 욕망은 자연히 소실되거나 또는 위험한 공상을 낳게 된다. 우리 학교 앞을 지나는 남자 고등 학생들은 거개가 교문에서 안을 들여다 본다. 남학생들의 여학생에 대한 호기심일 것이다. 수 삼일 전에 시내 모남여 공학하는 고등학교의 생활지도주임 선생님과 남여 학생간의 사소한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었다. 이 학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남여 학생 서로의 호기심의 충족이라 할까.

세째, 사물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길러 관찰에 의한 객관적인 결론을 내리는 태도를 길러야 하겠다. 키가 작고 체중이 많은 학생은 키가 크고 날씬한 학생을 부러워 한다. 이들에게 너의 부모의 체중이 많으니까 네가 고능도의 식품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등 교사의 일방적인 생각을 학생에게 강요하기 쉬우나 오히려 이 학생과의 대화로 학생 스스로가 키가 크고 날씬한 학생과의 가족과 생활 양식등을 비교 조사케 한다면 제 나름의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될것이다. 또 사물을 관찰하는 태도가 생길 것이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여 그것에 대해 알아 보려는 의욕과 생각해 보려는 태도가 길러질 것이며 방

법 또한 깨우쳐 질 것이다.

네째, 과학적인 태도를 기르는데 있어서는 감각 기관을 통한 실제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관찰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자연과 접할 기회를 넓혀 관찰할 기회를 마련하되 감각기관을 직접 동원 하도록하여 사물의 특성을 여러모로 이해하여 구분하는 능력이 길러지게 하는 것이다. 물건을 만져 볼때 다른 온도에서는 어떠한가. 다른 조도하에서는 어떠한가 등 복합적인 자가 주는 감각기관에서는 영향등 감각기관을 통하여 현상대로 자세히 관찰하고 이관찰을 기초로 객관적인 결론을 내리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고자 할때 실제로 해보도록하며 제 손을 써서 만들수 있는 기술을 기르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 결과의 잘 잘못 보다는 그 과정에서 그가 기쁨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기술을 습득하도록하는 목적을 달성하던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학적인 행동의 발달이 표제가 말하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이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 목적을 살펴보겠다.

교육법 제104조에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 보통 교육과 전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교육 목적의 실현을 위해 동법 제105조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①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 확대시키어 중견 국민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기능을 기른다.

② 국가 사회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비판력을 기른다.

③ 민족의 사명을 자각하고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며,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케 하며 일반적 교양을 높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기른다”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전국민의 과학화를 이룩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생의 심신의 발달에 알맞는 방법과 기술을 이용하여 학습 지도 생활 지도를 통해 과학적인 행동의 발달을 꾀해야 하겠다.

### ⊙ 교육 주체(교육자)의 문제

교육의 주체인 교직자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교직은 전문직이 되어야겠다.

전문직으로서의 요인은

첫째, 전문적인 준비 교육과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현행 교육법에 사범 교육기간이 짧다는 것과 우수한 교사 지망생을 영입할 사회적인 보장이 주어져야겠다.

둘째, 계속적인 현직 교육이 필요하다—현행 재 교육 제도는 형식적이며서 실효성이 극히 적다고 보여진다. 적어도 한학기~두학기를 재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겠다.

셋째, 생애업으로 삼아야 한다—생활하는지 생존하는지 구별이 안가는 현행 보수 규정은 교직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만을 엿보게 한다.

넷째, 개인적인 수익 보다다 사회적인 봉사에 힘써야 한다—실 생활의 걱정은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흐트러지게 한다.

다섯째, 강건하고 건밀하게 결합된 동직자의 조직이 필요하다—교육연합회는 많은 교직자들로 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좀더 적극적인 교직자의 공동이익에 눈을 돌려야될 시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 ⊙ 교육 교제의 문제

교육 요소 중 교제도 살펴봐야겠다. 우수한

교육기재를 풍부하게 마련하는 일이다. 교육에의 투자를 소모로만 보는 위인들이 도처에 산재하는한 해결의 실마리는 요원할 것이다. 생산 공장이나 서비스업에의 투자는 짧은 기간에 투자한 사람에게 현금으로 직접 이윤을 가져다 주지만 교육에 투자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사회의 무형의 이윤을 돌려줄을 알아야하겠다.

### ⊙ 학교교육외의 문제

학교 교육 외의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신문의 사회면에 심심치 않게 무당, 작명가, 운명 감정가 등의 기사로 장식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학교가 시도한 과학화의 길을 무산시키고 있지 않은지. 아이를 낳은 젊은 부부는 사랑받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기억하기 쉬운 우리말을 골라 그의 이름으로 할 수 없을까, 입학시험기를 앞둔 어머니, 투표기를 앞둔 선량 지망생, 사업을 한다는 사회 지도층 인사의 부인이 운명 감정가를 찾아 점을 보고 무당을 초치 곳을 하는등 여사한 사태는 과학적(합리적) 사고에서 우러나온 결과일까. 이러한 부모를 둔 교육 객체가 제대로 자라기를 바랄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이런점을 유의하여 올바른 자녀교육 즉 과학적인 자녀교육에 힘써야 하겠다.